

차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엘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튼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교문

매리온 디 헨스  
로버트 디 헤일즈  
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코트

하나님의 형상대로.....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2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울슨 스코트 카드..... 4  
불의 희생..... 토마스 제이 그리피스..... 8  
요셉 스미드의 상처를 수술한  
외과 의사..... 르로이 에스 위스틴..... 10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 제이 에이 패리..... 13  
질 의 응답..... 18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21  
친구가 친구에게..... 제이 리차드 클라크 장로..... 25  
심심풀이..... 28  
존 테일러..... 32  
십대의 개척자..... 고든 어빙..... 37  
지역 지도자 메시지.....이 호남..... 43  
기구찌 장로와의 대답..... 44  
지역 소식..... 47



표 2 사진설명 :

교회 최초의 신전은 1836년에 당시 교회의 본부가 있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헌납되었다. 단 2년 동안 사용한 후 오하이오주에서 시작된 물문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그대로 두고 성도들은 그곳을 떠났다. 이 신전은 아직도 견제하나 지금은 교회 소유가 아니다.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해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60호, 제14권 제11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8년 11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팅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계 구와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전 수	1978년 제11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소주
---	---



# 하나님의 형상대로

매리은 지 르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세기 1: 1, 25-28)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님은 최초의 남편과 아내를 두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자가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으며, 남자 없이 여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전 11-11 참조)

남편과 아내는 이러한 기본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 관계의 목적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조화와 존경과 사려깊은 태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자기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행동을

취하여서는 안됩니다. 서로 상의하고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관리할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친절과 사랑과 인내와 이해로 상의하여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노예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한 반려자이며, 특히 말일성도의 남편과 아내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남자도 여자가 없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고 승영에 이를 수 없으며, 어떠한 여자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완전과 승영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며, 인간을 창조할 때 남녀가 결혼 성약으로 하나가 되도록 의도하였으므로, 하나는 다른 하나가 없이는 불완전합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1939, 제16장, 272페이지)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신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 신권을 의롭게 행사하여 가정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돌아보시는 것과 같은 정신에서 행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찌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 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시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에베소서 5: 22-31)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가장 되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골 3: 18-21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88-89페이지)

남편은 그의 신권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것을 아내에게 대한 위협의 수단으로 삼으셔도 안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인 자기 자녀의 어머니를 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물론 그것은 아내가 순수하고 충실한 어머니요 아내임을 가정한 것입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교성 121: 41) 으로 해야 합니다.

이 성구는 신권 소유자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권 소유자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의 율법이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며, 둘째는 그와 같아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은…… 결혼 관계에서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소망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있으나 이와 같은 다스림은 폭군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불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난폭하게 다스리지 않으십니다.”(복음 교리, 274페이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 27)

남편과 아내되는 우리는 사랑의 율법대로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

나는 늘 이른 아침에 툭툭히 뛰는 운동을 하는데 가끔 여섯 살 된 아들이 일찍 일어나면 나와 함께 뛰곤 합니다. 아들은 나처럼 멀리까지 뛸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지점까지 나와 함께 뛰어 가서는 그곳에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옵니다. 우리는 함께 뛰는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학교 2학년인 아들은 학교에 관한 것을 모두 보관하는 바인더를 갖고 있습니다. 때때로 아침에 우리는 함께 앉아서 그 바인더를 검토합니다. 아들은 각 사항에 대하여 내게 이야기해 주고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것도 알려 줍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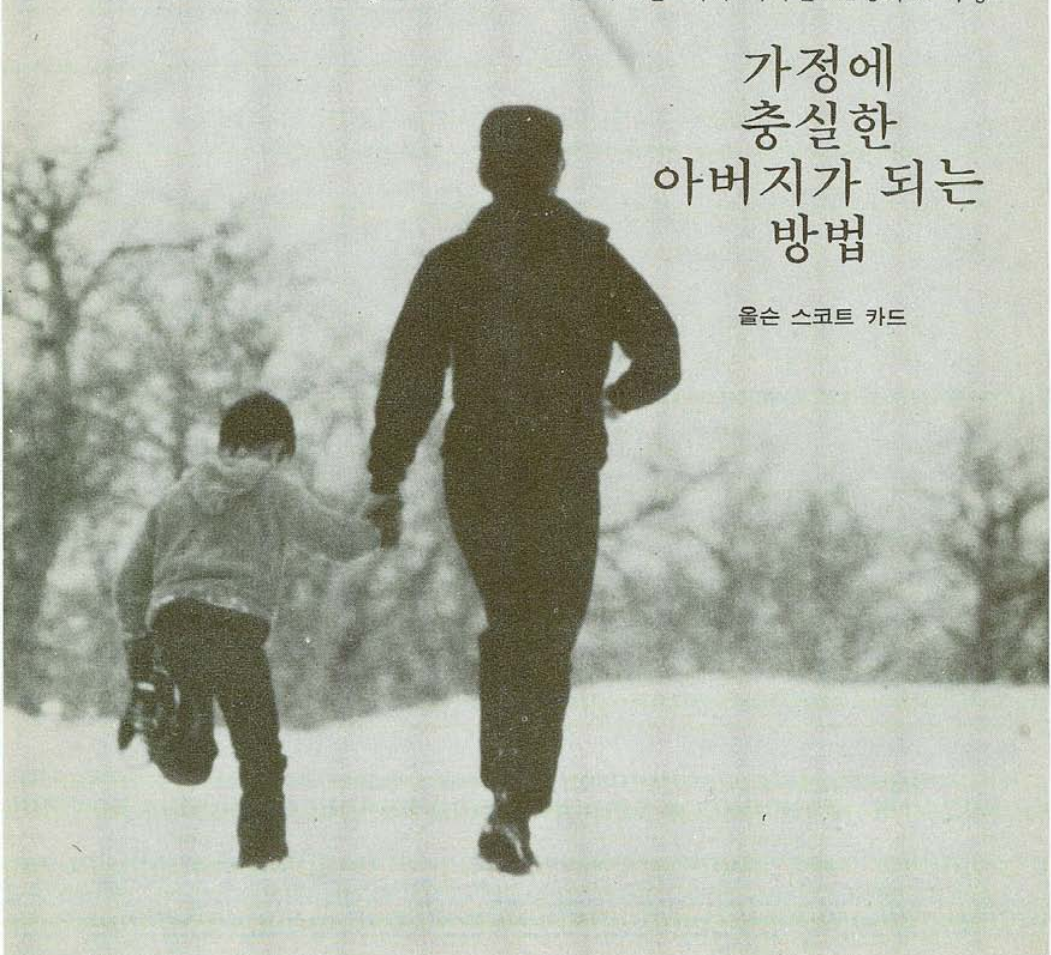
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15분 내지 20분 정도만 걸립니다마는 매초가 값진 것이지요.”

“나는 자주 근처 마을이나 먼 곳까지 여행을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은 참으로 싫습니다. 그래서 간혹 자녀 한 명을 데리고 갑니다. 큰 아이들에게는 운전도 시킵니다. 이와같이 함께 있는 시간에 우리는 그동안 내가 바쁜 동안에 잃었던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게 됩니다.”

아버지들이 바빠서 자녀 교육을 위해 점점 시간을 내지 않는 이 시대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녀를 존경하고 사랑

##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

울슨 스코트 카드



하고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와 같은 아버지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보다 더욱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실은 그들이 모두 교회 일에 가장 바쁜 감독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모두 사회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과 아내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의 어떠한 것이라도 자녀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나와 여러분이 좀더 빨리 충실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로리다주 올란도 제 2와드의 로버드 엘픽스톤 감독의 말이다. “나는 요즈음 몇 년 전에 나 혼자 하려 했던 것들을 지금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은 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마는 자녀들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나와 함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녀를 잘 인도하는 아버지의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것 같다. 그들은 그들의 짧은 자유 시간을 가장 진요하게 활용한다. 그들은 자유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는 자녀를 뵈 수 있는 대로 자주 참여시키려 한다.

### “좀더 빨리 충실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

“달력을 보면서 휴일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제 2와드의 존 에르 얼윈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휴일은 집에서 보내도록 노력합니다. 내가 매일 저녁에 하는 일과광을 한두 가지로 제한한다면 별로 분주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나 며칠 동안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다른 날 밤을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물론 가정의

밤은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지요” 이었다.

“월요일 저녁에는 아무도 전화나 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제 2와드의 아라킬 감독의 말이다. “제가 감독이 되던 날 저는 와드 회원에게 긴급한 일이 아니고서는 월요일 밤에는 회원을 만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밤은 다만 시초에 불과하다. “매주 저는 자녀들과 접견을 갖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접견이 영적인 성격의 접견도 있지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따위의 접견이 더 많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성적, 학업, 친구, 취미, 등등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빠, 나하고 언제 접견해요?’ 라고 기다리게 되지요.”

토드 크리스토퍼슨 감독은 이러한 접견 시간을 상당히 친밀한 분위기 가운데 갖는다. “주중에 갖는 그 시간에 우리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내지마는 그들이 모험 만들거나 공놀이를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면 그렇게 하지요.”

캔자스주, 오비랜드 파크 제 2와드의 리처드 피 할비슨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반시간 동안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보이기 위하여 여러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니다. 단 몇 분 동안에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상대방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대화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때때로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결코 초조하거나 급한 듯한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듣는 시간이 아빠가 지

금 들어줄 수 없다고 설명하는 시간보다 적게 든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버지니아주 스터얼링 파크 지부장인 잭 엘 그린 지부장은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그의 십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많은 시간을 내 주지 않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 “나는 가능하면 내 아이들과 그들의 친구를 무도회나 다른 활동에 데려다 주면서 나 자신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나는 자녀와 함께 있고 그들의 친구를 알며, 친구들과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나이가 어린 자녀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린 지부장은 말한다. “직장에서 돌아 온 직후가 가장 좋은 4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는 아직 저녁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때이고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오기를 몹시 기다리지요. 그래서 그때 나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거나 그들과 함께 잠깐 재미있는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픽슨튼 감독이 발견한 또 다른 이상적인 시간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다. 그의 아내 바바라는 이렇게 말한다. “그이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면 아이들을 한 명씩 재우는 데 온 저녁을 다 보낸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이는 각 아이에게 꽤 오래 동안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저 자신도 각 아이와 것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적이 종종 있어요. 때때로 그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쳐 주면 어린 아이들은 춤을 추지요. 아이들은 그것을 매우 좋아해요.”

“저는 다행스럽게도”하고 애리조나주 메사 제15와드의 마일로 헤바른 이세 감독은 말을 시작한다. “나의 자녀는 시간제 고용인으로 고용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집으로 함께 차를 몰고 오는 10분이 매우 귀중한 시간입

니다. 아이들과 나만이 차 안에서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휴가를 들 수 있다. 야영을 하거나 그냥 집에서 일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휴가 기간은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다. 캘리포니아주 파시피아 와드의 로이드 디윌슨 감독은 캠프와 낚시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휴가를 보내는 독특한 방법을 발견하였다. “몇 년 전에 나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장남과 차남, 그리고 그 아이들의 친구 한 명과 함께 네바다주 엘라이부터 콜로라도까지 자전거로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달렸고 피곤하면 쉬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225킬로미터도 더 달린 적도 있었지요. 우리는 함께 계획했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 조정할

그러나 아무리 세밀하게 시간을 계획하여도 그 계획이 좌절될 경우도 있다. 8일간의 출장, 야근을 하게 만드는 갑작스런 업무, 추수기, 업무 교체 등등 많은 요인으로 인해 아버지가 며칠 동안, 아니면 몇 주 동안 집을 떠나게 될 수 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셨습니까?”라는 미드랜드 미시간 스테이크의 로버트 시윌트 부장에게 질문하였다.

“좋은 아내를 선택하십시오” 그의 대답이다. 이것은 종종 바쁜 아버지가 가족과 성공적인 관계를 이루는 데 열쇠가 된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직장이나 교회의 일로 아버지가 잠시라도 가정을 떠나야 할 때, 어머니의 태도는 큰 비중을 갖게 된다.

어느 감독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였다. “남편이 감독으로 되면서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요. 마당 일도 제가 해야 했고 집안 일도 모두 제가 해

야 했어요. 그분은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수 밖에요.” 그녀의 남편은 동의 하였다. “사실 아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지워졌지요. 내가 집에 왔을 때 아직 전날 저녁에 먹은 접시가 싱크대에 그대로 있거나 거실이 지저분하거나 잔디밭에 잔디가 많이 자라 있으면 나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을 시작하고 도와와지요. 그리고 자녀들의 도움도 받고요. 내 아내는 나의 하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내의 하는 일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자녀의 태도에 신경을 써서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한 번은 감독은 강조하였다. “나는 아빠는 교회 모임에 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놀아줄 수 없어 하는 말을 안하려고 주의합니다. 나는 교회가 아빠를 가정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는다고 그들이 불만을 갖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나는 잠시 동안이라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게임을 시작시켜 놓은 다음에 가야 한다고 말하지요. 그냥 모임에 간다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 모임의 성격과 중요성에 대하여 말해 줍니다.

“내가 가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자녀들은 더 잘 이해하더군요. 그리고 그들과 잠시라도 함께 놀아 주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무시당하거나 경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합니다.”

아내의 태도와 자녀의 태도는 바쁜 아버지의 잦은 부재를 보상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그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 자신의 태도에 있다.

캘리포니아 와드의 감독인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는 일과 이외로 더 일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일을 합니다. 그들은 항상 도서관을 찾아다니지요. 그들이 작성한 기사는 정규적으로 출판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값을 치루고 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부름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직장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말일성도 아버지는 자신의 우선 순위를 알아야 한다. 물론 사회에서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진 부름을 잘 수행하기를 기대하신다. “나에게는 나의 가족이 우선 순위 일위입니다.”라고 캘리포니아주 린다 마 와드의 로버트 이 소렌슨 이세 감독의 말이다. “내가 사회에서의 일을 우선 순위 제1위로 놓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일은 가족, 교회 다음인 3위입니다. 이제 같은 직장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이행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나는 나쁜 보고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토요일에는 가족과 와드에서나 나를 볼 수 있지 사무실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일요일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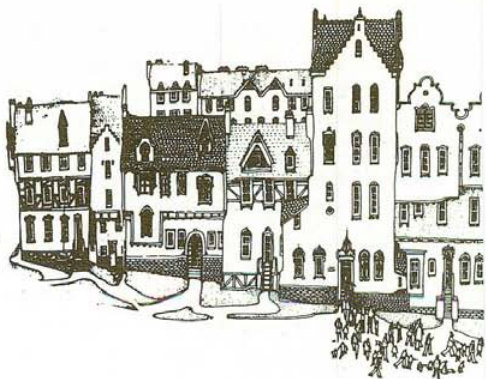
이들 바쁜 감독들은 그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는 모두 놀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약간의 적개심을 나타낸다 한다. 어느 감독은 이렇게 말하였다. “결국 우리 사장이나 동료들도 모두 가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그들도 전보다 더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일주일에 닷새 일을 해도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세상은 시작 된 것이지요.” \*

그 해 가을 저녁, 엘리 데이비스의 오두막집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걸음을 멈추고 한번쯤은 굴뚝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내음을 맡았을 것이다. 그것은 보통 석탄 연기 냄새와는 달랐다. 그들이 집안에 들어가 보았다면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엘리 데이비스씨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그는 어느 조그마한 웨일즈 지방 마을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산 사람이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웨일즈 사람들만이 발음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었다. 그의 일생은 지극히 단순하였다. 그는 근처 광산에서 서기로 일하였으며, 일주일에 며칠 동안 저녁에는 오두막집에 가서 맥주 한잔을 마시면서 동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당구나 화살 던지기를 구경하였다.

오두막집에 들르지 않는 날은 집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다. 엘리 데이비스는 마음속 깊은 곳에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이었다. 그는 언젠가 근처 교회의 목사를 만나 회원이 되도록 권유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는 목사에게 그의 설교는 모두 허튼 소리이며 경전을 믿을 수 없다면서 목사를 당황하게 만들어 되돌려 보낸 적이 있었다. 그러한 일이 있던 적이 수년 전이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교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지 않았다.

결혼한 지 겨우 2년이 되었을 때 사랑하던 아내가 해산하다가 죽자 그의 생애에는 비극이 찾아 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그웨니드와 그가 영원히 헤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벽난로 가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 밖에는 젊은 두 청년이 서 있었다.



## 불의 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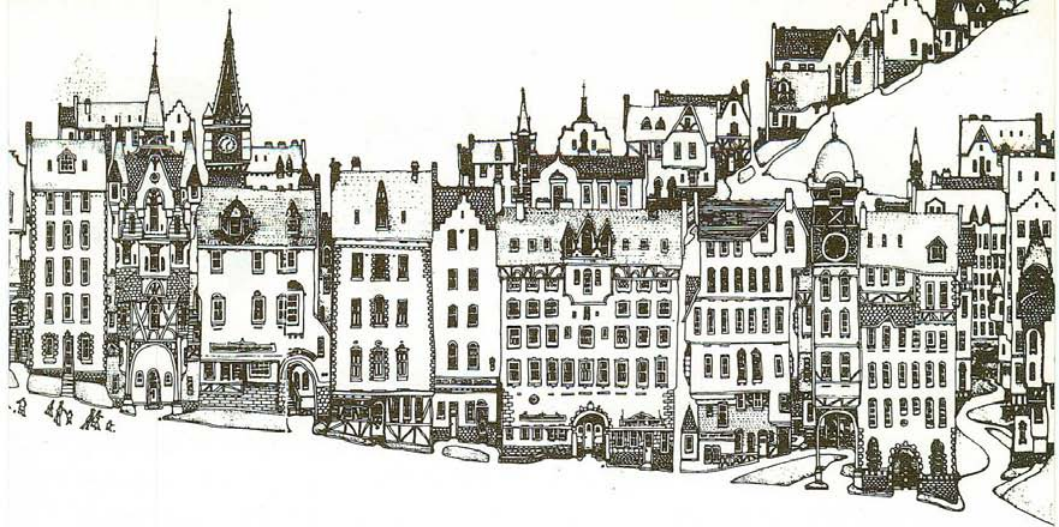
토마스 제이 그리피스

어떻게 오셨는지도 채 묻기 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와 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들이 가르치려는 것도 역시 허튼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면전에서 문을 닫으려던 엘리 데이비스는 다시 한번 젊은 청년들을 보았다. 그들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었다. 그는 그들의 얼굴에서 진실과 성의와 용기를 보았다.

완고한 웨일즈 사람답지 않게 그는 “들어오시오”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벽난로의 불길이 그들 얼굴에 어른거리는 가운데에서 이 두 청년은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였다. 허튼 소리이리라고 생각했던 말은 그의 심금을 울려 주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이 두 젊은이들은 엘리 데이비스씨로부터 다시 들려 달라는 간절한 당부를 받으면서 집을 떠났다.





머칠 후 그들은 엠리를 다시 찾아와 복음 토론을 계속하였다. 그러자 그의 마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드디어 왔다. 선교사들은 그에게 영원한 결혼의 율법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며 주님의 신전에서 인봉 의식을 받으면 그와 죽은 아내가 다시 결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 같았다. 그는 진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가 칩제를 받기 전에 한 가지 방해물이 있었다. 그는 담배를 좋아했다. 주막집에서 마시는 맥주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년 동안 그는 갖가지 파이프를 수집하여 담배를 피워 왔다.

그는 칩제받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담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칩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드렸다. 아침의 햇살이 웨일즈 지방의 언덕을 비칠 때 기도의 응답이 왔다. 주님은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담배는 사람에게 좋지 아니한 것이

요”(교성 89 : 8) 거룩하지 못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다음 주 일요일 성찬식이 끝나자 엠리 데이비스는 지부 회원들을 그의 오두막 집으로 초대하였다. 그는 웨일즈의 케이크와 음료수를 마련하였다. 간단한다 과를 돌린 후 그는 손님에게 말하였다.

“얼마 동안 저는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밤 폐회 찬송을 부를 때 해결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회생은 하늘 축복 가져 오나니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파이프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벽난로 위에 있는 파이프 상자를 꺼내어 내리고는 그 안에서 파이프를 하나씩 꺼내어 불 속에 던지면서 불꽃 속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그의 양 옆에는 두 선교사가 서 있었고 그 뒤에는 지부 회원들이 서서 지켜 보고 있었다. 바깥의 공기는 불타는 파이프의 향내가 그윽했고 집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



# 요셉 스미스의 상처를 수술한 외과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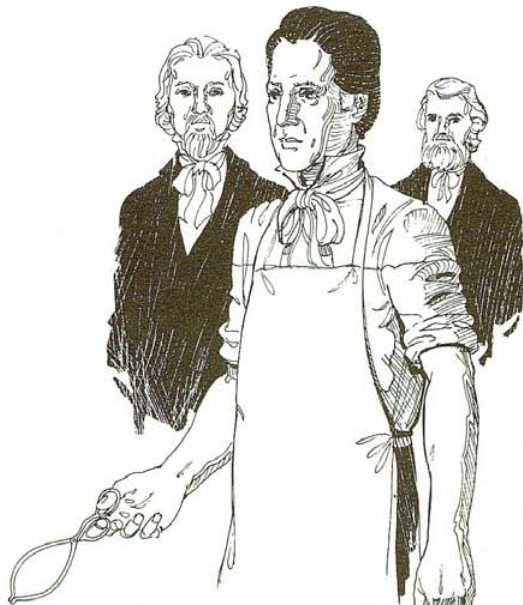


르로이 에스 위스틴

**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여덟 살의 요셉 스미스가 다리에 염증이 생겨 절단해야 했을 때 보였던 용기에 감탄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알코올로 통증을 잊게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의 팔을 잡아 달라고 하여 수술의 아픔을 견디고자 하였던 그의 의지를 기억한다. 외과 의사로서 나는 항상 요셉 스미스의 수술과 특히 성공적으로 수행한 의사들에 대하여 기이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일은 1813년 뉴햄프셔의 농촌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요셉의 다리에 생긴 감염(골수염)은 스미스 가족 전체에게

전염되었던 전염성 티프스의 후유증이 었다. 그 당시는 물론이고 금세기에 항생물질이 발견되기 전까지 골수염은 무서운 병이었다. 고대 희랍의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정상적인 치료 방법은 감염된 살에 습포와 석고를 부착시키는 것에 그쳤다. 이러한 방법의 효과는 극히 미약하다. 뼈까지 감염이 되면 골절마디의 긴 부분이 죽게 되며, 새로운 뼈는 그대로 자라서 죽은 물질을 안에 넣고 싸면서 자라게 된다. 결국 죽은 뼈는 분리되어 몸 속에 있으면서 몸의 다른 부분으로 병균을 옮겨서 나중에는 죽게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후의



수단은 다리를 절단시키는 것이었다.

1874년에 뼈의 죽은 부분을 제거하고 드레이니지(배액법) 하는 수술 방법이 소개되어 널리 받아들여졌다. 부골 절출술이라고 알려진 이 수술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통상으로 사용하는 수술법이 되었다.

이러한 일은 1세기가 지난 후의 일이었다. 1813년, 루시맥 스미스가 이 수술에 대하여 쓴 것이다.

“의사들은 먼저 감염된 쪽의 다리 뼈를 도려 내었고 다음에는 다른 쪽의 뼈도 도려 내었다. 그런 다음 접자와 펴셋으로 그것을 뼈어 내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큰 뼈 조각을 제거하였다.”

루시 스미스는 1874년에 알려진 수술법을 묘사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러한 외과 기술이 공개되기 60년 전에 뉴햄프셔의 레바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술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일성도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말한다. 교회사 사본으로 알려진 곳에 요셉 스미스는 그 의사들의 이름을 “스미스, 스톤 그리고 퍼킨스”로서 뉴햄프셔, 하노바의 다펜스 외과 대학 출신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들은 그 당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별로 수혈을 받지 못한 시골 의사들이 아니었다.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하바드 대학교 의과 대학 출신이며 다펜스 외과 대학의 유일한 창립자요 후에 세계의 뉴잉글랜드 의과 내학을 세운 나단 스미스는 뉴햄프셔 의사 협회 회장일 뿐 아니라 요셉 스미스를 치료하기 전에 코네티컷주 뉴헤븐에 있는 예일 의과 대학에서 최초의 약학 및 외과 교수의 직위를 받아들였었다. 그는 뉴헤븐으로의 이사가 지연되었기 때문

에 뉴햄프셔, 하노바 주변에서 전염되었던 피프스 전염병에 걸린자를 치료할 수 있었다.

사이러스 퍼킨스는 나단 스미스의 제자로서 다펜스 의과 대학 출신의 의사였다. 퍼킨스는 후에 이곳으로 돌아와 해부학 교수가 되었고 스승의 수술에 참여 하였던 것이었다.

스톤 씨도 스미스씨의 제자인 듯하다. 다펜스 의과 대학의 출석부에는 스톤이라는 이름의 학생이 여럿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단 스미스가 미국 역사 초기의 위대한 의사 중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1798년에 골수염 수술 방법을 고안하여 1827년에 출판하였으나 두세대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시대 이전의 세대에서 요셉 스미스의 다리를 구할 수 있었던 미국인은 스미스씨 이외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나단 스미스는 3년 동안 시골 의사 밑에서 의술을 습득하였다. 그러다가 뉴햄프셔의 콘니쉬에서 개업을 하였다. 그때까지의 준비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3년 후에 당시 새로 창립된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있는 하바드 대학교 의과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는 5회 졸업생이 되어 1790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의학의 표준을 이룩하고 동료 대학 동창들간에 가장 숙련된 의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으로 느껴졌다. 그는 다펜스 대학의 이사장에게 의과 대학을 신설한 것을 청원하였으며, 1년간 그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가서 비품, 책, 그리고 임상 경험을 쌓았다. 1797년 그의 강의로 다펜스 의과 대학이 시작되었다.

30년 동안 그는 오로지 해부학, 화학, 의과 수술, 치료법, 약학의 학설과 실제 등을 가르치다가 뉴햄프셔의 의회가 퍼킨스로 하여금 1810년에 해부학 교수로서 그를 돕게 하자 함께 일하게 되었다.

아무도 강의료를 받지 않았다. 학비와 그들이 동업하는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수입이었다. 스미스 박사는 북부 뉴잉글랜드에서 많은 의사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경우에 그에게 상의를 해왔다. 때로는 말을 타고 거친 길을 따라 400리를 달려야 했다. 그는 보통 이런 때도, 10명 내지 20명의 의학도들을 데리고 떠나 훈련시켰다.

이러한 방법은 요셉 스미스의 경우에 그에게 해당되었던 것이었다. 스톤 박사가 두 차례나 요셉의 감염된 다리에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실패하자 요셉의 이미지는 다른 의견을 주장하면서 “의과 의사회”에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나단 스미스와 그의 동업자인 사이러스 퍼킨스 그리고 의학도들이 다트머스로부터 필요한 수술을 집도하기 위하여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절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루시 백 스미스는 감염된 뼈만 제거하는 수술을 요구하였다. 과정에

대한 그녀의 설명을 정확하며 초기 다트머스 의학도의 노트에서 발견된 수술 설명과 비슷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요셉의 상처는 나았다. 노출된 뼈 절단 부위가 빠르게 아문 것은 정말로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나단 스미스는 뜻밖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수술 후 결코 절단 수술 경위를 기록하지 않았다. 요셉은 3년 동안 목발을 사용했지만 그의 생명과 다리는 건재하게 되었다.

전염병과 수술 후 나단 스미스와 요셉 스미스는 모두 뉴햄프셔에 남아 있었다. 나단 스미스는 예일 의과 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요셉은 그의 위대한 사업을 시작하게 될 뉴욕주 팔마이라로 가기 전 3년 동안 있을 버몬트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이것을 우연한 일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두 차례의 수술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단 제의에 응하지 않은 담력있는 소년, 당시 미국에서 골수염을 치료한 성공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유일한 의과 의사가 나단 스미스인 줄을 모르면서도 그러한 과정을 요구한 어머니, 그리고 적시에 적합한 사람이 만나게 된 일 등은 우연이 아니었다. \*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신전에 갔던 날처럼 저의 부모님이 기뻐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손을 잡고 제단 돌레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바로 이거야, 이제 우리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되었어!’”

“저희들이 신전에서 인봉되던 날 저는 진실로 저의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인봉되기 위하여 신전에 갔던 날이 우리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지요.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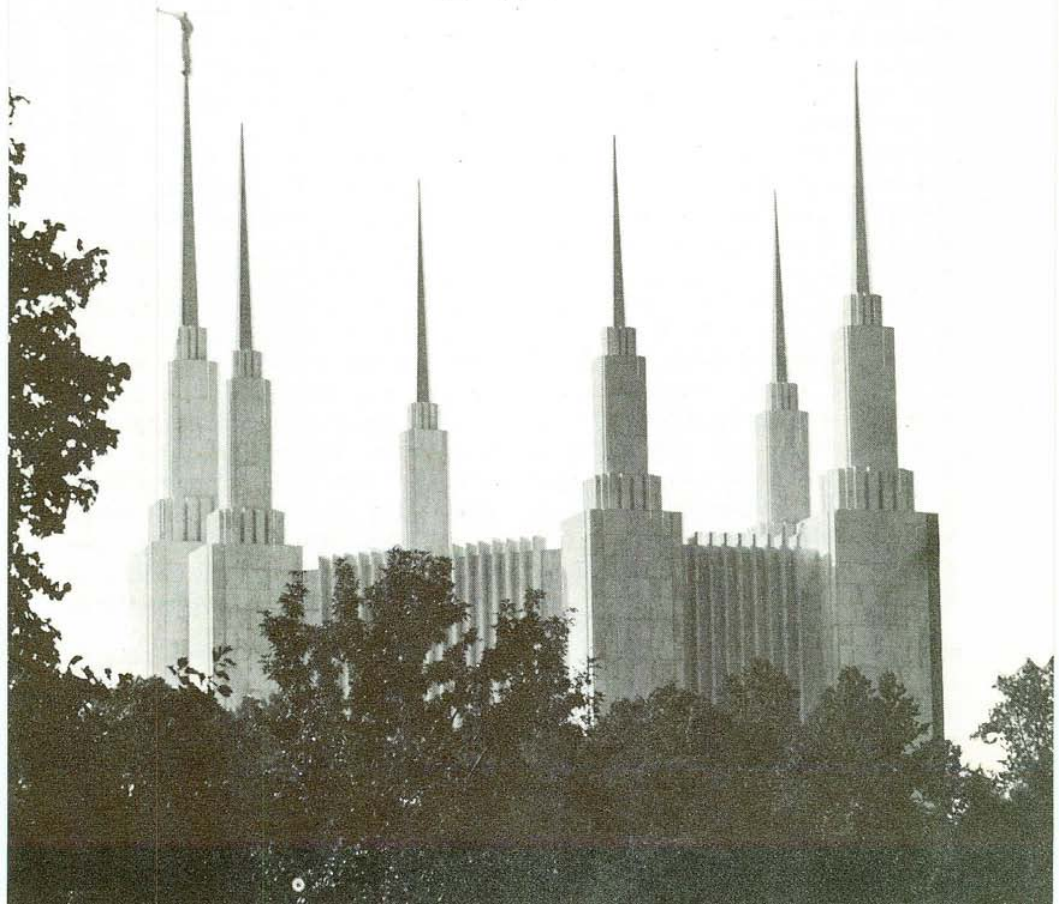
리는 영원히 그날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인봉되기 위하여 성스러운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화평과 평온의 느낌이 들리더군요. 그 순간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로 단합되는 것을 강하게 느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많은 성도들의 꿈이 실현된다. 남편과 아내는 이미 현세만을 위하여 결혼한 상대방에게 신전에서 영원을 위하여 인봉되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결혼 활동 회원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

제이 에이 패리



있다. 어떤 사람은 비회원과 결혼했던 사람이며, 나쁜 습관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비회원 또는 비활동 회원 또는 쾌락을 얻기 위한 나쁜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신전에서 볼 수 있을 만큼 발전될 수 있는 것일까?

“몇년 전만 해도” 어느 회원의 말이다. “친구들과 함께 당구를 즐기고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다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캔사스주로 이사왔을 때에도 모든 것이 여전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종교에 관하여 별로 개의치도 않았읍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감독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더군요. 물론 감독님은 이 청을 장로 정원회 회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지요. 회장은 이에 대하여 기도를 하고는 자기 자신이 우리 집의 가정 복음 교사가 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자 이상스러운 일이 생긴 것이지요. 그가 우리 집에 처음으로 방문하였을 때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가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사실 전에는 가정 복음 교사를 집안으로 들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저에게 친구로서 단지 나를 염려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운동을 좋아하느냐고 물더군요. 그것 참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나는 운동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는 농구를 할 계획인데 함께 선수로 뛰어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즐겁게 함께 운동했습니다. 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술집에서도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들은 참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여전히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매달 가정 복음 교사가 나오라고 청했으나 “그때나 저는 무슨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변화를 갖는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정원회 회장은 저의 구실에 대하여 저를

기분나쁘게 하거나 무안하게 하지 않았읍니다. 그가 우리 집에 오면 항상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다 저의 부친께서 세상을 떠나셨읍니다. 그때 저는 저의 온 일생을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결코 부친과 모친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다음 일요일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읍니다. 사람들은 제가 전혀 비활동 회원이 아니었던 것처럼 저를 받아 주셨읍니다.”

그때부터 그의 새로운 발걸음은 아내와 자녀와 함께 신전에 들어가도록 옮겨진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느끼거나 회개와 투쟁할 때 조용하게 점점 변화한다.

1972년에 한 부부와 여섯 명의 자녀가 신전에서 인봉되었다. “우리 가족이 모두 신전에 갔던 날처럼 저의 부모님이 기뻐하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날의 기쁨은 20여 년 동안의 모든 노력의 결정이었지요.”라고 한 딸이 회상하였다. 부인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저는 철저한 말일성도 가정에서 자라 왔지만 비회원과 결혼했어요. 그를 개종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는 1953년에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제 성화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침례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 전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침례 받기 전에는 입에 대지도 않던 술과 담배를 침례 후에 마시고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몹시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독선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다가는 와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곤 했어요.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예요.”

결국 무엇이 변화를 이루어 주었는가? “저는 그때 너무 열심히 기도만 하느라고 주님의 응답을 들을 시간조차 내지 않았답니다. 응답을 들었어도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나 마침내 너무도

절망적이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른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남편을 사랑하라’ 성령이 제게 속삭여 주었어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거라.’ 결국 저는 그대로 했더니 얼마 안되어서 우리는 신전에 가게 되었어요.”

동시에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녀의 남편에게 영향력을 미치셨다. 직장 동료들이 요셉 스미스를 비웃고 놀려대기 시작하자 그는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몰라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교회를 떠나려 했었다. “저는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번도 물론경을 진실로 이해하려고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그 방법은 실패를 거두었습니다. 저도 진실로 진리에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주었던 말없는 내조에 놀랐지요. 잔소리를 하거나 제가 전에 교회에 나가려고 시작했을 때 했던 것처럼 ‘제가 뭐했어?’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저의 손을 잡고는 제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주겠다고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경전 공부와 교회 참석.....십지어 금식 주일에 간증까지 드린 후에 선교사 복음 토론을 검토하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어려움을 치르었다. “저는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지 1년이 되지만 저에게는 강한 의지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사적으로 담배를 끊기로 결심할 때마다 무슨 일이든 생겨서 갑자기 제 손에 담배가 들려져 있고 입에서는 연기가 나오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로 구하면 주님이 인간의 욕망을 가져가 버리신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강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주님이 제가 이러한 투쟁으로써 보다 강해지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담배를 끊을 수 없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주님께 기도로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담배 냄새를 맡으면 다시 피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약속을 깨뜨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신전에 가기 전에 해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에 물론 정해진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야근을 하였으며,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신권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석했습니다. 둘째로 나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십일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목표는 많은 변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가 각 단계를 완수해야 하는 마감일과 신전에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일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부부는 한번도 신전에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에 참석을 초청받았다. “매주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 신전에 가기 위하여 생활을 변경시켜야 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실지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매주 복음에 관한 자기 다른 과제

를 받아 그 주간에 달성하고 생활에 옮기도록 과제를 받았읍니다.” 세미나가 끝났을 때 그들은 신전에 갈 준비가 다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으며 필요한 접견을 가졌다.” 1973년 10월 9일, 우리는 엔다우먼트를 받고 우리 자녀인 존과 제미와 현세와 영원토록 인봉될 수 있었읍니다. 그날은 실로 우리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읍니다.”

또 다른 자매는 그녀의 가족이 신전에 결국 갈 수 있게 되었던 과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마도 제가 완전히 비활동 회원이 된 가장 큰 원인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였을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죄책감을 심하게 느꼈읍니다. 그러다가 나의 남편이 다른 주로 전근되었읍니다. 새로운 가정 복음 교사가 우리에게 지명되었읍니다. 그들의 이름은 파카투 형제와 말케크 형제였읍니다. 그들에게서 놀란 것은 거의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복음을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점이었어요. 그들이 계속 저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관심과 친절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읍니다. 모든 것이 향상되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말케크 형제는 두 딸을 차에 태워 그가 기르고 있는 토끼를 보여 주러 갔읍니다. 파카투 자매는 전화로 나를 불러서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로 했읍니다. 사실은 와드 회원이 모두 교회에 나가기도 않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읍니다. 이들 가정 복음 교사와 와드의 새로운 친구들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말씀과 주님의 다른 계명을 지키기 시작했고 결국 신전에 갈 수 있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그들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보았으며 우리는 그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믿었읍니다. 우리가 인봉받은 날은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이었어요.”

이러한 간증은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이 묘사하는 상황은 사람에 따라 다르

다. 그러나 신전에 가기 위하여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이면 모두 느끼는 느낌이 있다. “생각했던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었읍니다.” 캐나다에서 온 한 부부의 말이다. “우리는 결코 이렇게 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변화를 인식하기는 전에 신전에 갈 수 있게 되었군요.” 신전에 가려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얻으려고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는 완전이란 신전을 다녀오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엔다우먼트와 인봉은 보다 진보하고 향상 하는 데 필요한 조건만을 충족시키는 자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필요 조건은 많은 것이 아니다. 다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해야 할 바를 적시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보일 따름이다. 신전에 가기 위하여서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하고, 지도자를 지지하여야 하고, 완전한 심일조를 바쳐야 하고, 동료들에게 정직하게 대해야 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모임에 참석하며 교회의 법칙과 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인봉 의식을 갖기 위하여 신전에 가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 복음 교사나 신전 지도자와 함께 그들이 해야 할 바를 알기 위하여 위의 조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이미 합당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자신을 준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단계적 계획을 실행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생각하던 것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어려움은 다만 약속하여 착수하는 것이다.

인봉 의식이 우리 가정에 가져다 준 보상은 상당히 크다. 딸은 이렇게 말했다. “저의 아빠가 우리 모두를 데리고 신전에 가시기 전에는 아빠는 독제적이



졌고 큰 소리를 많이 내셨고 성을 잘 내셨어요. 지금은 매우 조용하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요. 저는 자라면서 때때로 아빠를 미워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아빠는 우리집에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아빠는 무척 다정하셔요. 계명을 그대로 지키셔서 과거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저는 참 기뻐요. 그리고 이것이 모두 아빠께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활 태도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신전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빠를 비활동 회원으로 만들고 신전에 가지 못하게 한 일을 아빠가 스스로 하지 않게 된 후에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아빠가 허비하신 세월을 아까와 하셨어요. 아기를 축복할 때마다 의식이 끝난후에 할아버지께서는 앉아서 조용히 우셨어요. 아빠가 자녀의 축복 의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아빠가 소유하고 계신 신권을 행사하여 축복 의식을 집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빠도 매우 부드러워지셨고 겸손해지셨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셨어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 때문에 저 자신을 미워하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 자신과 제 남편을 영적인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신전에 가도록 준비하면서 그러한 것을 하나씩 극복하게 되었지요. 지금은 제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저의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느껴 보았던 어떠한 것보다 가장 훌륭한 느낌입니다.”

인봉의 축복으로 마지막 축복은 이 현재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최근에 가진 금식 주일에 웨론이라는 한 자매는 어린아들 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폴은 집 근처의 하수도 구멍에 빠져 죽었다. 웨론은 그녀와 남편 맥스가 느꼈던 절망감을 이야기하였다. 그

“우리 가족이 모두 신전에갔던 날처럼 저의 부모님이 기뻐하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날의 기쁨은 20여 년 동안의 모든 노력의 결정이었지요”

들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었다. 폴은 여러 차례의 유산과 많은 기도가 있는 후에 이렇게 얻은 아들이었다. 처음부터 이 부부는 폴의 사랑과 예지와 강한 순종심을 느꼈었다. 폴의 존재는 그 가족에게 상당히 요구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폴의 죽음은 많은 시련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참극이 있는 3주 후에 웨론은 와드 회원 앞에 서서 그녀가 이 시련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말하였다. 그녀의 두 눈은 말라 있었으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저희에게 보여 주신 사랑과 도움에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련이었습시다……” 그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는 멈추어 단 밀을 내려다 보았다. 다시 말을 시작했을 때 그녀의 음성은 메었고 분명하게 말하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전보다 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폴은 저희 부부가 일생동안 노력했던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신권에 의하여 한 가족으로 인봉되었음을 알고 나는 많은 위로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봉되지 않았었다면 이 일은 거의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면 언젠가 그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



로버트 에프 클라이드  
히버 유타 동 스테이크 부장

기도나 말씀을 마칠 때 왜 아멘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던 것은 수 천년 전부터였습니다. 사실 이 지상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기도와 설교를 아멘으로 끝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시편 106편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찌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찌어다”(시 106 : 48)

주님께서는 에베드릴 때 우상에게 절하는 것에 관하여 모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찌니라”(신 27 : 15)

절정의 시대에 구세주께서는 주기도

를 아멘으로 끝맺으셨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인에게 가르쳤습니다. (고전 14 : 16 참조)

십이사도 평의회의 브르스 알 백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곳이 약 20개가 되고 물론경에서는 이것의 배가 되며 교리와 성약에서는 각 계시가 끝날 때마다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물론 교리, 북크레프트, 1966, 32페이지)

오늘날의 관리 역원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회원들간에서 기도와 말씀이 끝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소리가 현저하게 줄고 있다. 모든 회원은 큰 소리로 아멘을 외쳐 자신도 그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밝혀야 한다. 교회 전체를 통하여 모든 모임과 회합에서 회원들이 아멘이라는 말을 꼭 따라 해주기를 재 강조할 필요가 있다.”(신권 공보 1973년 10월, 제9권 제5호, 4페이지)

기도와 설교를 아멘으로 끝맺으라는 모든 지시와 권고와 더불어 우리는 이 행위 이면의 숨은 의미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멘이란 다만 “그렇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는 성약을 맺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칠계사에서 성찬을 들 때, 신권을 받을 때, 엔다우먼트를 받을 때, 그리고 영원한 결혼 인봉을 받을 때 성약을 맺습니다. 회중이 함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내용에 동의한다는 뜻을 구두로 표현할 뿐 아니라 그 원리대로 생활할 것을 약속하는 성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 아멘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짐할 임무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설교나 기도를 듣는다면 몇 가지를 성취하게 됩니다.

첫째, 기도나 말씀의 내용에 더욱 주의를 집중시키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원리나 맺은 성약에 대한 내용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에서 명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칠판 앞에서, 신권 지도자와의 접견에서, 신전에서 약속할 것을 마음속에 재삼 뇌이고, 의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합니다.

둘째 순종의 약속을 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셋째, 합심하여 아멘 할 때 회중이 하나로 되는 일치감과 친밀감을 갖게되며 성도들 간에 영성이 커지게 됩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감 받은 지도자의 권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은 언제나 증가될 것입니다. \*



마빈 알 밴담

솔트레이크 올림퍼스 스테이크,  
홀리데이 제20와드 감독단 보좌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최근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이 우리의 영원한 가족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자녀들이 태어나면 죽은 아들도 이 지상에서 우리 가족의 일부임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72년 8월 아름다운 오후에 어린 아들 패트릭의 무덤을 헌납한 때부터 우리 가족은 계속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패트릭은 펜실베이니아주 애빙톤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시의 합병증으로 패트릭은 겨우 출생 육일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조그만 공동묘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정착하여 살게 될 곳, 적어도 우리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에 패트릭을 묻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차 한동안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살아야 했던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랐고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유타주에서 장례식을 갖고 아기를 묻었습니다. 그후로 우리는 유럽의 두 나라로 이동되어, 그곳에서 살다가 다시 유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와같이 결정을 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묘지를 헌납하는 기도에서 나는 우리 가족이 언젠가 패트릭이 있는 완전한 곳에서 그와 함께 만날 수 있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육년 후인 지금도 우리는 종종 같은 축복을 간구하며 그 기도가 가족으로 하여금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격려와 용기가 되어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아들이요 형인 패트릭과 언젠가 만나 다시 함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그의 성공과 복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기에 죽은 어린 아기는 완전하며 주님의 왕국에 거하기에 합당하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패트릭이 묻혀 있는 묘지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곳에 가서 가족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잠깐 멈추어서 패트릭 형 무덤에서 기도하고 가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자녀에게 중요하고 성스럽고 영원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패트릭이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의 일부인 만큼 우리는 그의 생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의 생일에는 생일 케이크를 구워서 나누워 먹기도 합니다. 우리는 패트릭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

의 작은 몸은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영원히 다시 합쳐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남은 아이들에게 완전한 신앙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네 자녀가 모두 패트릭이 죽은 후에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그를 기억 할 수 있도록 편집한 흰색 가족 표지의 기억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기억의 책에는 그의 출생신고서 출생시 병원가서 찍은 사진, 장례식과 하관식의 사진, 그의 사망에 관계된 서신, 그 밖의 조그마한 보화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기억의 책을 보일 때마다 패트릭은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실제의 인물로 되새겨지고 그를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자녀들에게도 실제의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나의 아내, 샌디와 나는 주님께서 이 어린 아들의 출생과 사망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갖게 되었던 가장 아름답고 영적인 가족 경험의 하나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패트릭의 출생과 그의 사망까지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패트릭 자신에 대한 추억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냈던 특별하고 성스러운 며칠간에 대한 추억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죽은 어린 아이에 관한 교회의 교리와 기록을 할 수 있는 때로 모두 찾아 보았습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우리는 그와 같은 약속과 그 어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패트릭만을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잊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 준 특별한 가족의 목표와 약속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나는 하나님의 자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성**도의 벗 어린이 난을 읽는 어린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일생 동안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복음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진리는 나오미 더블류 맨들 자매가 시를 짓고 밀드레드 더블류 페릿이 곡을 부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린이 찬송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복음 원리를 위시한 모든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값진 진주에서 우리는 이 지상에 오기 훨씬 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적인 존재로 살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육체의 몸으로 이 지상에서 살 수 있도록 내려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계획에 기뻐서 “기쁘게 소리하였”(욥 38 : 7)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중에서 이 지상에 내려와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할 사람을 결정하였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가장 명석한 아들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올바른 일을 행하고 싶어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메리고 오겠으니 자기를 지상에 내보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루시퍼는 욕심이 많고 이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성공에 대한 모든 명예와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했습니다. 루시퍼는 자기의 계획이 좌절되자 몹씨 화가 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를 쫓는 삼분지 일의 영들과 루시퍼는 하늘로부터 추방당하였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하게 허락되었으나 욕심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매우 시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 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전의 여러 세계에서 사용되었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용하는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만행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

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욕심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를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 지상에서 의롭게 생활하면 모든 죄를 용서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유혹을 받아 그릇된 일을 택하여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하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진실로 잘못을 깨달아 그 그릇된 행위에서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상태로 있는 우리는 육체를 받은 축복과 우리 스스로가 행동을 선택하는 놀라운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옳을 일을 택할 때마다 지식이 자라고 성품과 지도력이 향상되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



부지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언하신 방법을 따르기로 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찬송가에 담긴 아름다운 내용은 특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진실로 이해할 때, 우리의 간증은 자랍니다. 또한 우리는 옳지 못한 일을 하도록 유혹받을 때 쉽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헤아리셨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 각 사람이 그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써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서 원하시는 성품을 향상시

킴으로써 보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는 즐거움과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즐거움을 맛보는 진보 과정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지상의 최초의 부모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어떠한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아서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계획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영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선택 하였습니다.

전세에 대한 모든 기억(영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살던 기억)은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날 때 모두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성신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이 지상에서 육신의 부모의 자녀인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임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

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행복과 큰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절하시고 사랑스러운 지상의 부모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한 가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보이는 것과 같이 지상의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진으로 돌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옳은 일만을 택하여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진실로 회개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초등학교와 주일 학교 교사, 그밖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충고와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인도되고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일생 동안 우리 곁에서 생활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기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단 한 가지 소망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행복이란 우리가 의롭게 생활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성신의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우리는 성찬을 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가 우리에게 하신 바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 역자주 : 우리말 가사로는 “주와 함께 살도록 가르쳐 줍소서”이다.

계명을 지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면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신의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가사 중 원래는 “언젠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맨들 자매는 킴볼 대관장님의 제언에 따라 가사 단어를 고쳤습니다.

여러 해 전, 스펜서 더블류 킴볼 장로님이 대관장으로 되시기 전, 그는 캘리포니아 대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대회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후에 그는 방문 초등학교 본부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들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있더군요. “말아야 하는지”를 “해야 하는지”로 바꾸면 맨들 자매님이 싫어 하십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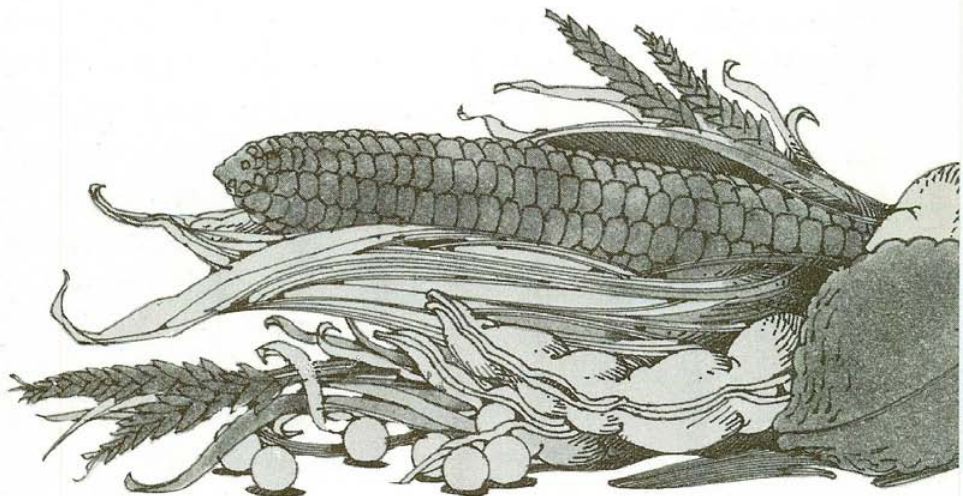
단어가 변경되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지적하셨기 때문 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 할 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



# 친구가 친구에게

제이 리차드 클라크 장로  
관리 감독단 제 2 보좌



**관** 리 감독단 일원이 된 이후로 내가 가졌던 가장 흥미있었던 것 중 하나는 교회 복지 사업 프로그램에서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히버레이 그랜트 대관장 재임시, 1936년에 계획되어 우리의 생활의 여러 가지 다른 분야를 포함하는 큰 프로그램으로 성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지 사업이란 우리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갖고 있지 못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족과 함께 교회 목장에 가서 봉사 사업을 한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있는 복지 농장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간 한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세 살, 열 살, 열한 살의 세 자녀는 아빠와 함께 사탕수수 밭에서 잡초를 뽑는 일을 하였습니다. 일이 점점 힘들어지자 열 살 된 소녀가 갑자기 일손을 멈추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잡초 뽑는 일은 사탕수수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탕수수가 자라, 추수하여, 가공처리된 설탕은 온 세계의 교회 복지 농장에서 수확된 다른 여러 종류의 식품과 함께 음식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교회 회원을 위하여 감독의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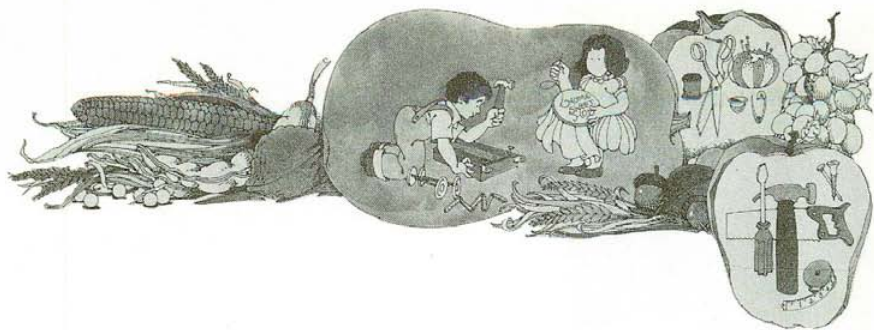
고에 보관됩니다.

그러나 복지 사업 프로그램은 이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지 사업 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에서 자신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백여 년 전, 브리감 영 대관장은 교회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어린 딸이 인형을 갖고 싶어 한다면 인형을 갖게 해 주겠습니까? 물론 갖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인형에게 입힐 옷을 양장점에서 맞추어 입히겠습니까? 아닙니다. 딸들에게 인형에게 입힐 옷을 몸소 재단하고 바느질하여 입는 자기 자신의 옷은 물론 다른 사람의 옷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들에게는 연장을 주어 자신의 썰매나 작은 마차 등을 만들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장성한 후에는 연장을 잘 이용하여 큰 마차, 집, 그밖의 여러 가지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의 설교집, 210 페이지)

어린이 여러분, 그 옛날의 소년 소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어린이들도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후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때는 우리가 아직 어릴 때입니다. 어린 소년 소녀 여러분은 오늘 요리법, 바느질법, 공작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동안 여러분은 즐거울 뿐 아니라 가족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킴블 대관장은 교회의 모든 가족에게 일년분의 식량과 의류를 비축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가정에서 채소밭을 가꾸라고 권하셨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가족은 어린 자녀가 여덟 명이 있는데 넓은 밭이 있어서 각 자녀는 자기 자기의 이랑이 있어 돌보았습니다. 각 자녀가 자기의 이랑을 잘 돌봄으로써 온 가족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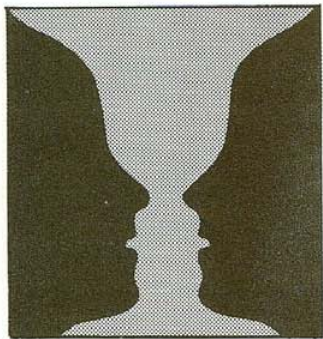
어떤 가족에서는 아들 두 명에게 그 가족이 비축한 식량품의 목록을 기록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또한 식량 공급을 확인하여 재보충이 필요한 식품품을 부모에게 보고하는 중요한 책임까지 맡았습니다.

여러분이 채소밭을 돌보거나, 비축 식량을 기록하거나, 의복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공작하거나 그밖의 유

용한 기술을 익히거나 간에 여러분이 더 많이 알고 행할수록 더 많이 가족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훌륭한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도록 도와 주는 기술을 기르고 배우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이상은 어린이들이 교회 복지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돕고 이웃과 친구를 위하여 봉사할 때 여러분은 큰 행복을 발견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결실에 대하여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은 성구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어린 아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가지고 계시며 또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셨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왕국은 너희 것이요, 그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의 재물도 너희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행하라.”(교리와 성약 78 : 17-18, 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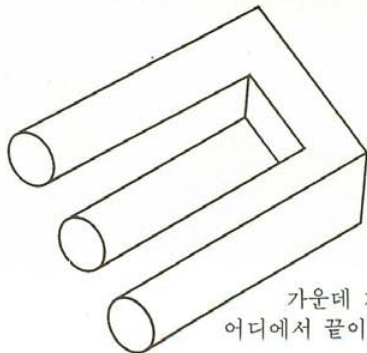
이 그림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개의 얼굴과  
하나의 꽃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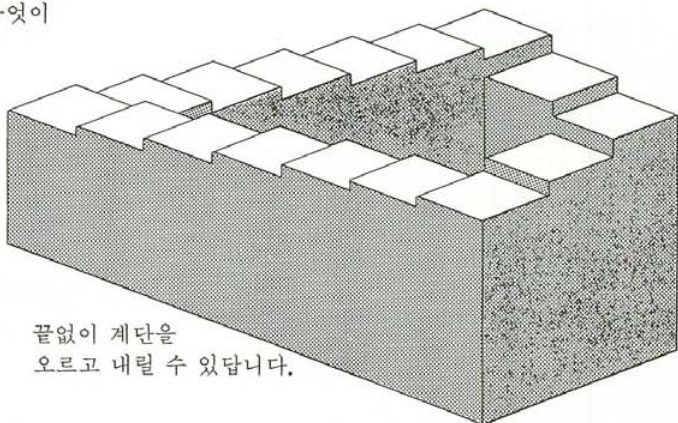


## 심심풀이

끝없이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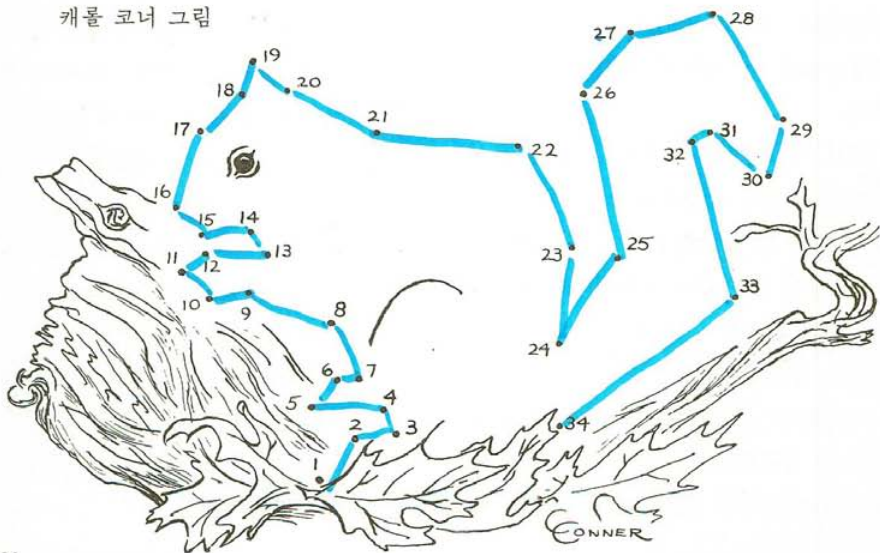


가운데 가지는  
어디에서 끝이 날까요?



## 점 잇기

캐롤 코너 그림





유지나 티 허린  
메사유세츠, 보스턴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저는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집행 역원은 저의 적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책으로 부르실 때에는 항상 두 가지의 기본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집행 역원으로 부름을 받으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개발시켜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기꺼이 노력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 됩니다.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필요 사항은 그

일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의 갖가지 다른 면에 대하여 잘 아는 여성은 누구든지 회장으로서의 자신의 부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회장은 전체 프로그램의 복잡한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권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처음부터 기초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 자료인, 지침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고, 분석하며, 중요한 곳에 밑줄을 칩니다. 이 책에는 상호부조회에 관한 계시와, 지시 사항, 경험, 판단 및 권고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대목을 한줄 한줄 자세히 검토해 보는 신임 회장에게 하나님의 영은 이해의 능력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지침서를 읽고 주님으로부터 인도를 구한 후, 회장은 전 상호부조회 회장을 방문하여 현재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기록과 자료를 인수 받습니다.

회장이 상호부조회 자매 각 사람에게 대하여 알아야 할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활동 회원인가? 비활동 회원인가? 기혼 자매인가, 미혼 자매인가? 집에 있는 자매인가, 직장 여성인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재능은 무엇이고 교회에서의 경력은 어떠한가? 회장단이 모여 다른 역원과 교사를 신중하게 택할 때, 각 자매의 능력에 맞는 부름의 임무를 자세히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동으로 하여금 부름 받은 자매의 책임과 그녀가 참석해야 하

는 모임을 설명하게 하여 오해가 없게 하고 감독이 지도력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독은 상호부조회 회장이나 교육 담당 보좌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 이러한 정보를 얻기 힘듭니다. 이 같은 정보는 서면 형식으로 감독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검토되어 부름받은 자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명백한 설명은 헌신적인 봉사를 하도록 격려해주는 가장 좋은 보충서가 됩니다. 방문 교사를 부를 때에도 방문 교사의 임무를 적어 주어야 합니다. 방문 교사와의 계간 접견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고양시키는 원천이 되며 그들은 모든 자매를 보살피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 대표이신 브라이언트 더블류로 시터 형제는 우리에게 몇 가지 훌륭한 행정면에서의 조언과 제언을 주셨습니다. (1) 성공적인 집행 역원은 그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는 자이다. (2) 모든 임무는 정해진 때까지 달성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지명하여야 한다. (3) 결과와 완성에 대한 보고 일자는 임무 지명 시에 정해져야 하고 계획된 대로 보고되어야 한다.

일상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시간을 정하여 그대로 따르는 것이 집행 역원의 행정 원리입니다. 이것은 오랜 토론과 결정을 요하지 않고 임무를 회장단 각 사람에게 지명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관리 및 보고 책임을 알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모임의 모임 순서 개요도 이에 포함됩니다.

교리는 지역에 따라 특수한 문제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보스톤 매사추세츠 스테이크의 각 와드와 지부는 한 두개 와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지역이 60리 내지 80리의 넓은 지역이며 자매들은 떠엄떠엄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와드나 지부의 구역을 나타내는 자세한 지도를 구입하여 각 자매의 집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제언하여야 합니다.

교회에는 급속하게 새로운 개종자들이 늘기 때문에 교회 총 회원수가 계속 바뀝니다. 따라서 회원 기록 카드를 제때에 작성하는 것과 지역을 방문하도록 임무를 지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기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회원의 생활이 활동적이고 발전하게 되느냐 아니면 무시되어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느냐의 큰 차이를 빚게 됩니다. 항상 새로운 자매를 찾아 맞아들이는 것이 교회 선교 프로그램에서 상호부조회 집행 역원이 갖추어야 할 역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름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호부조회 회장이 어느 이른 아침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날 밤에 가졌던 특별役員 및 교사 모임의 결과가 참으로 좋았기 때문에 기뻐서 전화를 걸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금식하고 성령이 그들의 노력을 축복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모였습니다. 한 자매는 상호부조회와 방문 교육의 덕택으로 활동 회원이 되었다고 했으며 그녀에게 보여 준 사랑과 헌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침으로써 얻은 축복에 대하여 말하였고 또 다른 자매는 상호부조회에서 나눈 큰 사랑과 자매애의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신성에 대한 간증과 지식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음악과 그들이 나눈 간증과 함께 주님의 영은

그들을 하나로 융화시켰으며, 평화와 즐거움이 깃들었습니다. 이들 자매들의 사랑스럽고 즐거운 정신은 분명히 온 세계를 축복할 것입니다. \*







# 존 테일러

망명 길에서 보낸 편지

**제**3대 대관장이신 존 테일러는 1808년 11월 1일, 영국 밀른드롭에서 태어나 1838년 12월 19일에 브리감 영과 히버 시 킴볼에 의하여 사도로 성임되었다. 그는 1877년 10월 6일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되었고 그의 나이 71세인 1880년 10월 10일에 교회 대관장으로 지지되었다. 그는 향년 78세를 일기로 1887년 7월 25일 유타주 케이스빌에서 운명하셨다.

**테**일러 대관장의 개종 이야기와 생애, 그리고 봉사 경력 등은 성도의 벗 1975년 2월호 15페이지에 실려 있다. 교회 대관장들의 글과 말씀을 모은 일연의 프로그램에 덧붙여 이번에는 테일러 대관장과 그의 제1보좌 조지 큐캐논의 서신에서 발췌하여 실었다.

이 서한은 1886년 4월 대회에서 모든

회중에게 낭독되었다. 이 시기는 교회가 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다. 유타주와 기타 지역에 살고있는 반물몬은 지역 및 국립 언론 기관과 많은 종교계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교회의 복흥 교리를 빙자하여 교회를 타도하고 추방하는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 미연방 정부에서는 복수 결혼을 행하고 있

는 사람에게 참정권, 집회를 열 수 있는 권리를 금하고 이를 어기면 구류에 처한다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복수 결혼을 실시하는 자는 벌금 500불과 징역 5년의 형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포고령은 오로지 말일성도를 말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유타주로 파견된 연방 정부 관리들과 유타에 살고 있는 반몰몬들은 복수 결혼의 율법을 시행하고 있는 교회 회원을 가려내고 핍박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아내들과 자녀들은 자신의 남편과 아버지에게 대한 반대 증언을 하도록 강요되었다. 그 결과로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숨어서 살아야 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테일러 대관장과 제1보좌 조지 큐 캐논을 위시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

(대관장단 제2보좌인 조셉 에프 스미스는 그 당시 하와이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다.)

테일러 대관장과 (캐논 부대관장)이 쓴 다음 편지는 이러한 위법적인 박해로부터 피신하여 있을 때 쓴 것이다.

**오** 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에게 아직은 아직 감사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땅은 아직 풍족한 식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변방에서 먹을 식량이 없어서 외치는 인간의 절규나 짐승의 외침은 아직 하늘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없습니다. 또한 가난한 영혼에게 생필품을 거절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과 편안한 의복과 풍족한 잡자의 축복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평

강, 곧 하나님께서 모든 충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화, 거주의 평화를 축복으로 받았으니, 이 평화는 인간의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평화이며, 이 평화를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과 자비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으시지 않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써 시온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사49:14)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같이 답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찌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이사야 49:15, 16)

주님께서 그의 백성이 시련을 겪지 않기를 기대하시거나 백성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시험받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조직된지 얼마후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미 나의 마음에 정하셨음이니, 곧 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시험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성약을 지키려 하는지를 알아 보아 너희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98:14-15) 사탄의 힘이 클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생활하면 여러분은 핏박을 겪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핏박이 가장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성실한 성도는 모두 이것을 이해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같은 핏박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며, 그의 친구와 이웃에게 주는 영향을 압니다. 핏박은 성품을 발전시킵니다. 이와 같은 영향 밑에서 우리는 이같은 압력을 알기 전보다 더 잘 우리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던 형제 자매들의 성품(기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겪은 핏박은 물론 매우 혹독한 것이었으나 전혀 말일성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충실한 성도들에게 힘과 새로운 열의와 용기와 결단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관심하던 사람들에게 무감각의 상태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업에 부지런히 매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여 위장된 우정과 가면을 벗고 자신의 실제 모습을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핏박을 제일 크게 영향 받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입니다. 많은 남녀 청소년들은, 부모나 친구들에게 전쟁이 없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때에 그들 자신이나 신앙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서는 세상과 온전한 우정을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말일성도라는 말이나 이방인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일성도와 이방인이 완전

한 우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험없는 말일성도라면 누구나 자녀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압니다. 그들은 이 핏박의 난폭함으로 인해 그러나 이 기만적인 꿈에서부터 깨어났습니다. 말일성도와 세상 사이의 경계선이 너무도 뚜렷하여 그들은 그들 부모와 친지 편에 서도록 강요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와 그것에 반대되는 세력과의 차이를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힘으로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핏박은 자라는 세대의 청소년들을 놀랄정도로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결코 지워 버릴 수 없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적이 우리에게 주는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구세주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 : 19)

주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들이 세상에게 가르치셨으며 지금까지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 신앙은 청결한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함으로써만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 지상에 회복시킨 것이 바로 이 신앙이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청결하게 남아 있는 한 이 신앙은 생명을 갖고 번성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말일성도가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연마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연마됨으로써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일성도가 온 영혼을 다하여 자신을 종교에 헌신 해야 할 때입니다. 말일성도는 그같이 생활하여 성신과 그 은사를 맞보아야 합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는 겪어야 할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같이 생활하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의 역원과 회원에게 부도덕과 불순결의 길로 향하려는 경향에 대하여 엄숙하게 경고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라는 허울 아래 성적인 만행을 가르치고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잘못된 비난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상적 체계나 윤리관이나 종교적 교리라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보다 더 순결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강조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신앙과 일치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점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어떠한 반대나 어떠한 가족의 유대나 어떠한 부의 영향도 우리를 형벌에서 구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주 전에 십이사도 평의회는 이 순결의 법을 어긴 회원 한 사람을 성도의 무리 가운데서 쫓아 내야 했습니다. 그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경험이 많고 판단력이 있으며 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나 신권의 직분이나 아무 것도 그를 그가 범한 율법에 대한 형벌에서 구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원은 공평하고 편견 없이,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의를 갖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존경하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율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버지의 해의 왕국을 얻고자 하시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모든 감정과 애정을 성별시킨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에 살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상황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상황에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각 개인이 현명하고, 공의롭고, 지혜로우며, 정직하고, 존경받을 만하며 청결 하면 그 사회는 그러한 덕성 때문에 다른 사회와 구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세주의 신부로 준비시키고자 원한다면 우리 각 사람이 종교를 생활화하여 신부가 신랑 앞에 나서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모든 덕성을 우리 생활에서 실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순결, 신앙, 근면, 선행 등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 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각자의 책임을 수행하고, 각자의 집에 질서를 세우며, 자신의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기를 원한다면 각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

# 십대의 개척자

마가렛 쥬드 클러슨의 모험

고든 어빙

**골드 러쉬**(새로 발견된 금광으로의 쇄도)의 해인 1849년에 가족과 함께 광야를 횡단한 17세의 소녀 마가렛 쥬드는 그때의 경험을 생생하고 재미있게 글로 표현하였다. 마가렛은 캐나다, 온테리오에서 태어났으며, 그녀가 다섯 살 되던 해에 그곳에서 그녀의 부모가 교회에 가입하였다. 이 여행이 있은지 60여 년이 지난 후에 쓰인 마가렛 게이 쥬드 클러슨의 회상록에서 마가렛은 성도들과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가족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타로 가는 십대의 소녀로서의 관심과 인상을 적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지 3년 후, 21번째 생일을 맞기 바로 전에 마가렛은 젊은 하이람 비 클러슨의 두번째 아내가 되었다. 그는 뛰어난 상인이요 사업가요 브리검 영 대관장의 재정 관리자가 된 사람이었다. 하이람과 마가렛 사이에서 낳은 아들 중 한 사람은 십이 사도 평의회 회장이 되었다. 마가렛은 향년 81세를 일기로 1912년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세상을 떠났다.

“성도들이 나무를 떠난 후, 나의 부모님은 록키 산맥으로 가기 위하여 포장 마차와 필수 용품 등을 사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을 하셨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한두 차례 몹시 앓으셔서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었다. 짐승들에 마차를 끌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매우 고생하셨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우리는 여섯 마리의 황소와 두 마리의 암소를 갖고 있었다. 암소는 상당히 잘 훈련되어 있고 차별했지만 황소들은 난폭하기가 이를 때 없었다. 아버지는 황소에게 멍에를 채우고는 물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갑자기 황소들이 아버지께서 물으시려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거나 마차 뒤로 뛰어 달아나서 모든 것을 혼란시켜 놓곤 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날은 계속되었다. 아버지께서 가축을 길들이시는 동안 어머니는 기도 하셨다. 어머니가 후에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모두 잠든 사이에 매일 집 뒤의 파수원에 나가서 주님께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궁핍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셨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근심거리는 내가 가장 감사성이 예민하고 낭만에 심

취하기 쉬운 17세의 소녀라는 점이였다. 어머니는 십대 소녀의 다정다감한 성격을 잘 알고 계신 터이라 어떤 젊은 청년이 나를 설득하여 내가 어머니보다 그 남자를 더 생각하게 하고 나를 그곳에 그대로 남도록 유혹할까봐 무척 두려워하셨다. 어머니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도 없었고 또 자식을 뒤에 남기고 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가 그곳에 더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여러 주 동안의 고된 노력 끝에 드디어 아버지께서는 황소를 길들이셨으며, 그래서 1849년5월9일, 남동생의 열 일곱째 생일날 우리는 친지와 친척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마차에 올라 타 길고도 위대한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난 기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목적지에 닿기만 한다면 무슨 고생인들 무슨 문제가 되랴?

“여행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맞는 밤을 우리는 평원에 천막을 치고 보냈다. 아버지는 소의 멍에를 풀어 주고는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하셨다. 아버지는 소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 보셔야 했다. 우리는 불을 지필 나무를 모았고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셨다. 그때 갑자기 무서운 폭풍이 몰려왔다. 비가 무섭게 쏟아졌고 우리는 흠뻑 비에 젖었다. 급히 마차속으로 들어 갔지만 세찬 바람 때문에 그곳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물론 불은 꺼져서 저녁 식사는 굶어야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는 해가 밝게 비쳐서 모든 것이 말랐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카운슬 블러프(아이오와주)까지 당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지 기억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그곳에서

일단의 무리를 만들기 위하여 그곳에서 약 한 달 동안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우리는 인디안의 습격을 막기 위하여 보호대를 조직해야 했다. 여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야영 생활은 참으로 지루하기 그지 없었다. 솔트레이크 시티로의 여행을 시작하였을 때 우리의 기쁨은 참으로 컸었다. 모든 것이 밝고 아름다웠다. 나는 젊고 건강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아름답게만 느껴졌다. 모든 책임과 근심과 염려는 부모님에게만 지워졌다.

“여행할 때 매일 매일 거의 같은 일과가 되풀이 되었다. 하루 종일 여행을 하고 나서 밤에는 야영을 하였다. 여자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자들은 가축을 돌보았다. 그것이 끝나면 젊은 이들은 모닥불을 피워 놓고 둘러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불렀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사람의 마차를 놓은 장소를 존중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황소 멩에나 야영용 솥이나 여행에 필요한 용구 등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땅이 곧 마차 마당이 되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찾아오면 나는 현관 안락 의자에 앉아 맞이하였다. 이러한 것이 광야에서의 생활이었다.

“나의 남동생은 한 과부와 어린 딸을 위하여 황소베를 몰아 주었다. 어린 딸은 매우 귀엽고 사랑스러웠으나 그 어머니는 약간 피팍스러운 여자였다. 그녀는 열 사람이 일주일 동안 걸려 대답할 정도의 질문을 한다고 동생은 말했다. 내 동생은 천성이 농담잡하는 아이이라 농담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숨을 쉬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였다. 그가 한 농담을 그녀가 믿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동생은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여행했우? 내일은 얼마

나 여행할꺼유? 물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이우? 인디안이나 만나게 되면 어찌지? 등등의 질문에 싫증이 날 정도였다. 그녀의 질문은 너무도 단조로워서 거의 견딜 수 없었다.

“마침내 칩니 록(굴뚝 바위)이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 동생은 모녀에게 끌려 줄 기회를 찾았다. 마차를 타고 가든지 기차를 타고 가든지 광야를 지나 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이정표를 본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높고 마치 굴뚝처럼 생긴 것으로 수세기 전에 세워진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여행하던 속도로 여행하면 그 굴뚝 바위를 보기 시작한 때로부터 며칠 동안 여행을 해야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또 다시 그 바위에 대한 그녀의 의심이 시작되자 동생은 그녀에게 상당히 믿음직한 말투로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그 바위를 밀어 넘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굴뚝 바위에 대해서 하도 말을 많이 듣고 또 그 바위가 오랫동안 이미 서 있었기 때문에 손만 대기만 하면 넘어진다고 그녀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녀는 동생에게 빌면서 제발 그대로 두어서 다른 이주자들도 이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동생은 막무가내였다. 그러나 그녀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가서 브리검 영 대관장에게 이르겠다고 위협하였다. 그것은 항상 그녀의 최후의 보루였다. 여하간 동생은 바위까지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올 때까지 이를 동안 그녀를 걱정하게 했다. 동생은 그때에야 그녀에게 그녀의 청을 들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녀는 기뻐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였다.

“동생은 그녀에게 한 마지막 농담이 사실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

였다. 다만 그녀를 놀려 주겠다는 이유로 그는 우리가 마지막 계곡인 이미그레이션 계곡에 닿기 전에 그녀의 마차가 뒤집혀 질 것이라고 줄곧 이야기해 왔었다. 사실 동생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되면 브리감에게 이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말로 뒤집혀서 기울어졌던 것이었다. 그 계곡은 남자도 몰아 내려 가기 어려운 곳이었다. 동생은 몹시 놀랐다. 그곳에는 남자라고는 동생 뿐이어서 몹시 겁을 먹고 있었다. 마차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동생만큼 힘을 쓴 사람은 없었다. 캠프에 있는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 동생은 마차를 길로 끌어 올렸는데 그곳은 매우 가파른 곳이었다. 마차는 거의 못쓰게 되었지만 안의 물건에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며, 그날이 바로 우리가 계곡으로 들어가기 전날이었다. 동생을 그녀가 브리감에게 일렸는지 안했는지 그후에 듣지 못했다.

“수 백리의 단조로운 여행은 우리의 소 떼가 달아나는 바람에 그 단조로움이 깨졌다. 더 많이 여행하면 할수록 소들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쉽게 놀라는 것 같았다.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밤이었다. 나는 인디안 때문이 아니면 우리가 매일 보는 들소 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밤에 가축을 울타리에 가두기로 하였다. 밤에 소떼에게 먹인 다음에는 몰아서 울타리 안에 넣었다. 울타리는 마차를 연결한 것이었다. 마차의 바퀴와 바퀴를 맞닿게 하여 둥근 원을 만들었으며 소를 몰아 들이는 입구만 빗장을 걸어서 완전한 울타리를 만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들소가 많은 지역에 있었다. 우리는 이 들소떼의 췌주(놀라서 우르르 도망침)가 얼마나 무서웠으며, 별로 오

래전이 아닌 때 큰 무리의 들소떼가 미친듯한 췌주를 시작했는데 전진하던 들소떼가 플레이드 강의 높은 벼랑으로 갔을 때 들소떼는 강으로 뛰어 들어 빠진 동료 들소를 위하여 다리를 만들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날 밤 2시경 온 캠프가 조용히 잠들고 있을 때 갑자기 짐승들의 발굽소리, 으르렁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땅이 흔들리고 마차가 흔들렸다. 순간 나의 머리에는 들소떼가 몰려오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으며, 우리는 이제 밟혀 죽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머리를 감싸고 죽을 준비를 하였다. 어머니는 곧 우리의 작은 침실에서 아무런 소리가 없자 췌배와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마차 전면에 있었다) 나는 이불 밑에서 아직 살아 있다고 간신히 대답 할 수 있었다.

“갑자기 사태는 변했다. 울타리를 부수고 나간 것은 우리 소떼였다. 무언가에 놀라 소들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한 것이었다. 소떼는 울타리 안을 빙빙 돌다가 입구를 막은 막대 빗장을 부순 것이었다. 소떼를 다시 모을 수는 없었다. 벌써 소떼는 사방으로 멀리 흩어진 것이었다. 소를 다시 몰아 오는 데에는 며칠이 걸렸는지 모른다. 지쳐서 죽은 소도 있고 죽임을 당한 것도 있었다. 남은 소들도 몹시 처참하게 보였다. 대장외 소 한 마리는 가파른 산으로 오르다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졌다. 한 마리는 마차를 끌 수 없을 만큼 약해졌고 또 한 마리는 우유를 적게냈다.

“그 일로 두세 명의 남자들이 다쳤는데 한 사람은 상당히 심하게 부상을 당했다. 그 사람은 금을 캐러 켈리포니아로 가던 중 우리 일단을 만나 합세한 사람이었다. 켈리포니아로 가는 사람들



은 물론 이주자들보다 훨씬 빠르게 여행하였다. 그는 소떼를 멈추게 하려 하다가 넘어져 소에게 밟혔던 것이었다. 그의 신음 소리는 처참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된 것은 다음해 겨울 그가 우리를 방문했을 때였다. 그동안 그는 내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는 일어 설 수는 있었으나 앉을 수 없었다. 그가 금광으로 간 후로는 그의 소식을 한번도 듣지 못하였다. 소들이 들은 집에서 길들여진 황소 떼가 켜주 할 때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난폭하고 광적이 된다고 한다. 소떼는 마치 번개가 일순간에 내려 치듯이 한꺼번에 켜주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겪게 되었던 아슬아슬한 모험은 우리가 천천히 여행을 하고 있던 어느 한적한 오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 갑자기 우리 일단의 마차가 번개와 같은 속도로 광야를 사방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빠른 말이라도 그 때의 우리 소를 쫓아 올 수는 없었으리라. 아버지는 마차 앞에 앉으셔서 그의 침착하고 늙은 소에게 바른 길로 가도록 의치며 채찍질을 하셨다. 아버지는 소들이 이리 저리 뛰어 가는 다른 소떼와 섞일까봐 두려워 하셨다. 또 우리 소들이 방향을 틀려 우리가 타고 있던 마차를 들이 받아 전복시킬까봐도 두려워하였다. 마차는 몹시 덜컹거렸다. 어떤 때는 머리가 마차 포장 꼭대기에 닿았다가는 통하고 아무테나 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겪어 보지 않고서는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다시 죽음이 내 눈 앞에서 아른거렸다, 나는 또 한번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곧 내 머리에서 가리

개를 빼앗았다. 모든 것이 진정되자 어머니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보면서 탈출할 가장 좋은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소떼는 갈 만큼 가다가 멈추었다. 이번에는 몇 가지 사고가 생겼었다. 한 여자는 죽었다. 넘어져서 소떼에 밟혀 죽은 것이었다. 그녀는 자녀만을 남기고 죽었다. 소떼의 켜주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다. 공포에 놀란 소떼에게는 무엇인가 무서운 것이 있다. 놀라움이 이성을 앞지르게 될 때 인간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소떼 중에 매우 영리한 소 한 마리가 있었다. 사실 그 소는 너무도 영리하여 멍에에 물리지 않으려고 버드나무에 숨곤 했으나 아버지가 찾아내어 멍에를 지워 놓으면 아주 충실한 일군이 되고 젃도 많이 내는 좋은 소가 되었다. 언젠가 그 소가 몹시 절룩거리며 거의 걸지를 못하였다. 이미 소 한마리를 잃은 뒤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은 말할 수 없이 컸었다. 부모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만큼 빨리 여행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하셨다. 어머니는 밤에 소가 누우면 곧 찢질약을 만들어 붙여 주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절룩거리는 쪽의 엉덩이를 완전히 덮을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습포를 만들셨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소를 깨우러 나가시자 아버지는 소리치셨다. “여보” 아픈 쪽이 아니라 다른 쪽 엉덩이에 습포를 발랐구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걱정마세요 괜찮아요. 다 나았으니깐요.’ 정말 그날 그 소는 거의 걸음을 예전처럼 회복되었다. 거기에는 습포 못지 않는 신앙이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초 가을에 우리는 산벚 나무 열매,

마가목 나무 열매, 그리고 들소 열매라고 부르는 조그만 빨간 열매 등을 찾아 따 먹었다. 어느날 나는 저녁에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캠프를 친 후 나는 몇몇 남녀 친구들에게 집안일을 다 한 후에 우리 캠프 모닥불에 오라고 초대하였다. 구두로 하는 초대나 짧은 통지는 전혀 실패되는 것이 아니었다. 모두 기쁘게 응하였다. 아무도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어머니께 들소 열매 파이를 만들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물론 파이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다. 파이는 고급 음식이어서 광야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음식이었다. 나는 최고급 간식으로 내 손님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친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잘 정돈하였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른 다음 나는 찬장(마차 밑의 상자)으로 가서 파이를 가지고 왔다. 파이를 돌리면서 나는 사과하는 듯이 파이가 썩 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용감한 청년이 재빨리 말했다. ‘그 손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든지 달지요’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친구들에게 다 나누어 준 다음 나는 내 몫의 파이를 조금 먹어보았다. 맵소사, 그 첫 한 입 파이의 맛이란 구연산으로 범벅을 한 것 같았다. 그것으로 광야에서의 파이 만들기는 끝을 내렸다. 나는 종종 어떻게 그들이 그 파이를 먹을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곤 했다. 예의 때문에 하는 수 없었던 것일게다. 캠프에 파이를 달게 만들 충분한 설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행하는 동안 제일 좋은 식사는 점심이었다. 어머니는 아침에 옥수수 죽을 만들어서 식지 않도록 싸두셨다. 소

것을 잔 다음에는 우유를 양철통에 붓고는 얼릴러지지 않게 뚜껑을 싸 놓으셨다. 정오에 우리가 소베에게 먹이를 주기 위하여 여행을 멈추면 어머니는 그 죽과 우유를 가지고 오신다. 가난한 우리들에게 그 옥수수 죽과 우유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여동생 페베는 그것을 싫어했다. 페베는 그런 음식은 먹어도 곧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입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누구의 입에서도 듣지 못하였다. 내가 만든 파이를 제외하고는 무슨 음식이나 맛이 좋았다. 흰 빵과 베이콘이 지금의 푸딩이나 파운드 케익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 환경이 우리의 입맛을 얼마나 바꾸어 놓는지 모른다.

“우리가 여행하면서 겪은 시련 중 가장 큰 시련은 와이오밍주, 래더미에 닿기 전날에 있었던 일이었다. 가축이 모두 피곤해 하고 발에 물집이 생겼으며 여행이 매우 힘들어서 그날은 아침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날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날은 마차를 탈 수 없었다. 나는 그날의 도보 행진을 잊을 수가 없다. 모래는 사람의 발목까지 빠졌고 짐승에게는 더 많이 빠졌다. 그날 밤 캠프를 쳤을 때까지 하루 종일 우리는 40리를 걸었다. 나는 몇 천리나 걸은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내가 다른 곳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여러 번 생각했었다.

“마침내 길고도 지리한 여행은 끝났다. 10월 15일 저녁에 우리는 이미그레이션 계곡 입구에 캠프를 쳤다. 매솔트레이크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광경은 참으로 영광스러웠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곧 계곡을 내려갔다. \*

# 가정의 행복

부산 선교부장 이 호남



자니링고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리네시아에는 단지 소 두 세 마리를 주면 부인을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니링고는 전례없는 가격으로 소 여덟 마리를 주고 폴리네시아 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자니링고의 어린 신부는 곧 자신도 이 마을에서 다른 어떤 부인보다 더욱 더 가치있는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태도가 변하였기 때문에 곧 여덟 마리 소의 부인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남편과 부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다른 가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여덟 마리 소 이상의 가치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여덟 마리 소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덟 마리의

소로 인정받고 인정하는 데서 가정의 행복은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매일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원리를 제시하겠습니다. 모두가 이 원리를 실행해 보아 진실한지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온 가족이 가정의 밤을 준비하는데 각자 분담하여 충분한 준비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도 연령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을 분담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둘째로, 경전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일년 계획을 짜고 매일 실행할 때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다.

셋째로, 매일 아침 집을 떠나기 전에 함께 가족 기도를 통해 하루의 축복을 간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일과를 감사드립니다.

네째, 교회에 온 가족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섯째, 타인을 위한 봉사로서 선을 행함에 지치지 않고,

여섯째, 온 가족이 선교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린 자녀는 잘 준비된 초등학교, 아론신권 및 청년회, 주일학교, 성찬식, 가정의 밤에 친구와 이웃을 초대합니다.

일곱째, 긍정적인 태도로 계명을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행복을 얻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간단한 원리를 매일 생활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가정의 행복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위대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가정의 행복을 더욱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